

Chaeg



책; 책과 문화,
예술을 담은 잡지

NO.35

April 2018

죽음 (Death)

이달의 토피

삶의 아틀라스

책 속 이야기

독서모임 책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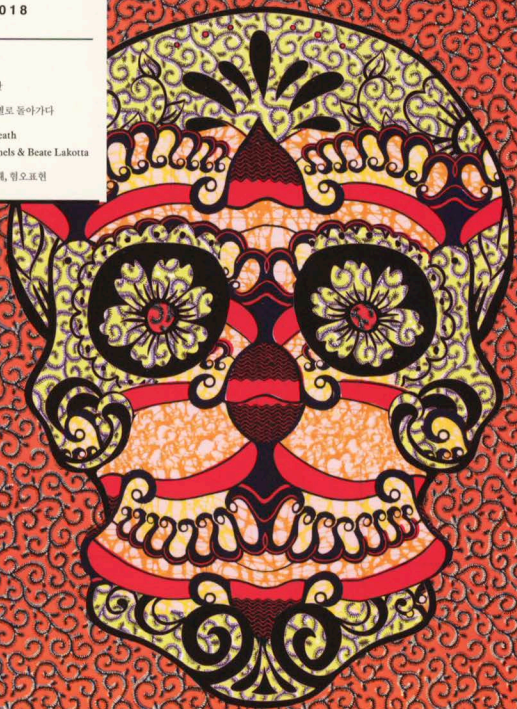
죽음 앞의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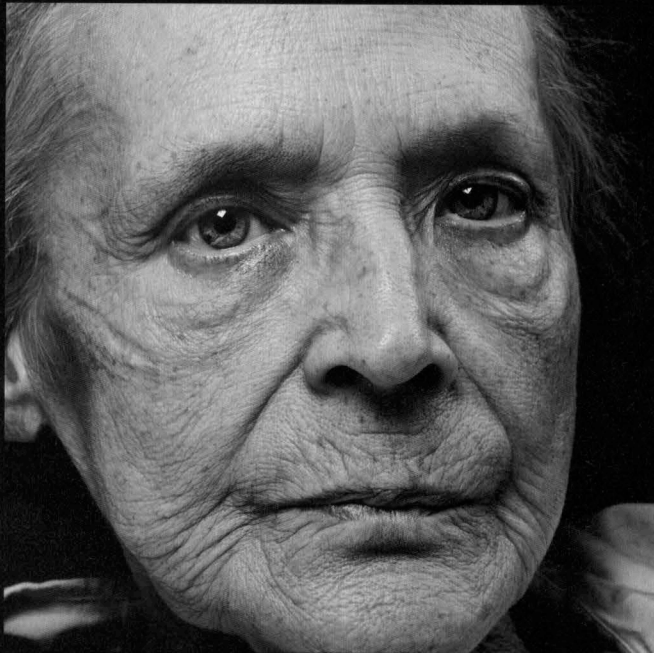
스티븐 호킹, 멜로 돌아가다

Life before death

by Walter Schels & Beate Lakotta

말이 끊어질 때, 혐오표현





Life before death

by Walter Schels & Beate Lakotta

에디터 지은경, 세비스티안 슈티케 Sebastian Schütysor
 사진 발탁 셀스 & 베아트 라코타 © Walter Schels & Beate Lakotta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왜 인생을 살아야 하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죽음의 문을 넘어서면 그들은 평온한 표정을 한 채 아무런 말이 없다.

Klara Beltreros
 age: 83
 born: 2nd December 1920
 first published: 6th February 2004
 died: 8th March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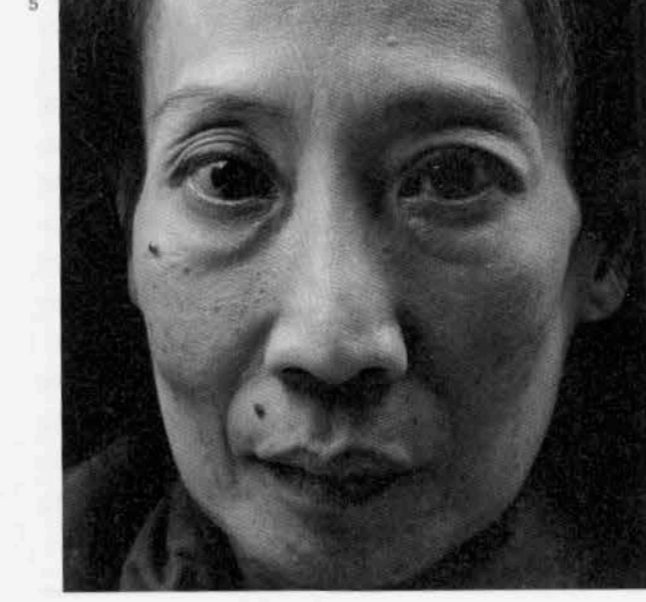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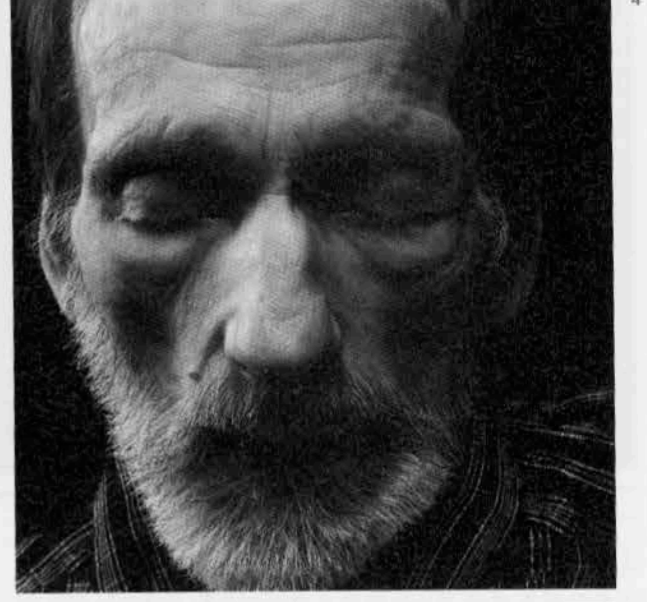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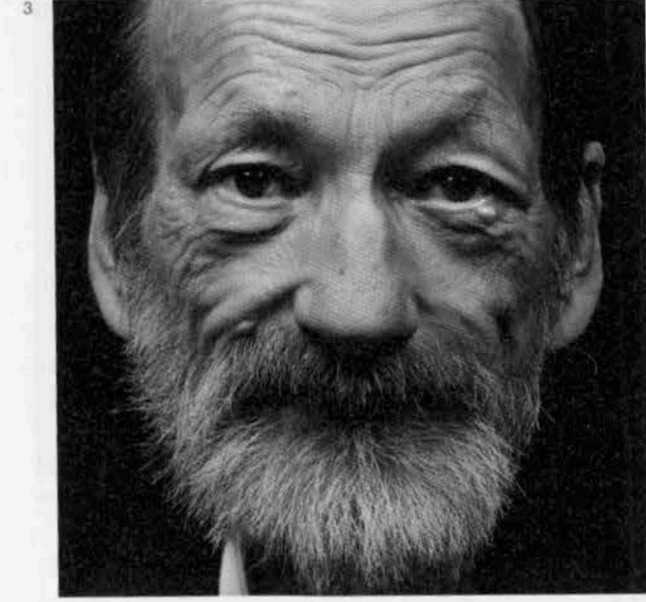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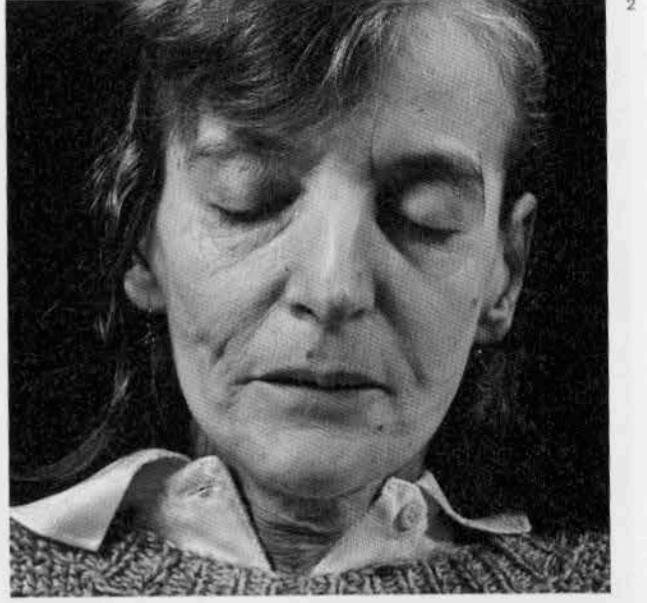
1-2 Ursula Appeldorn, age 57, born 17th September 1946
 first portrait taken 19th November 2003, died 22nd December 2003
 3-4 Wolfgang Kotzahn, age 57, born 19th January 1947
 first portrait taken 15th January 2004, died 4th February 2004
 5-6 Maria Hai-Anh Tuyet Cao, age 52, born 26th August 1951
 first portrait taken 5th December 2003, died 15th February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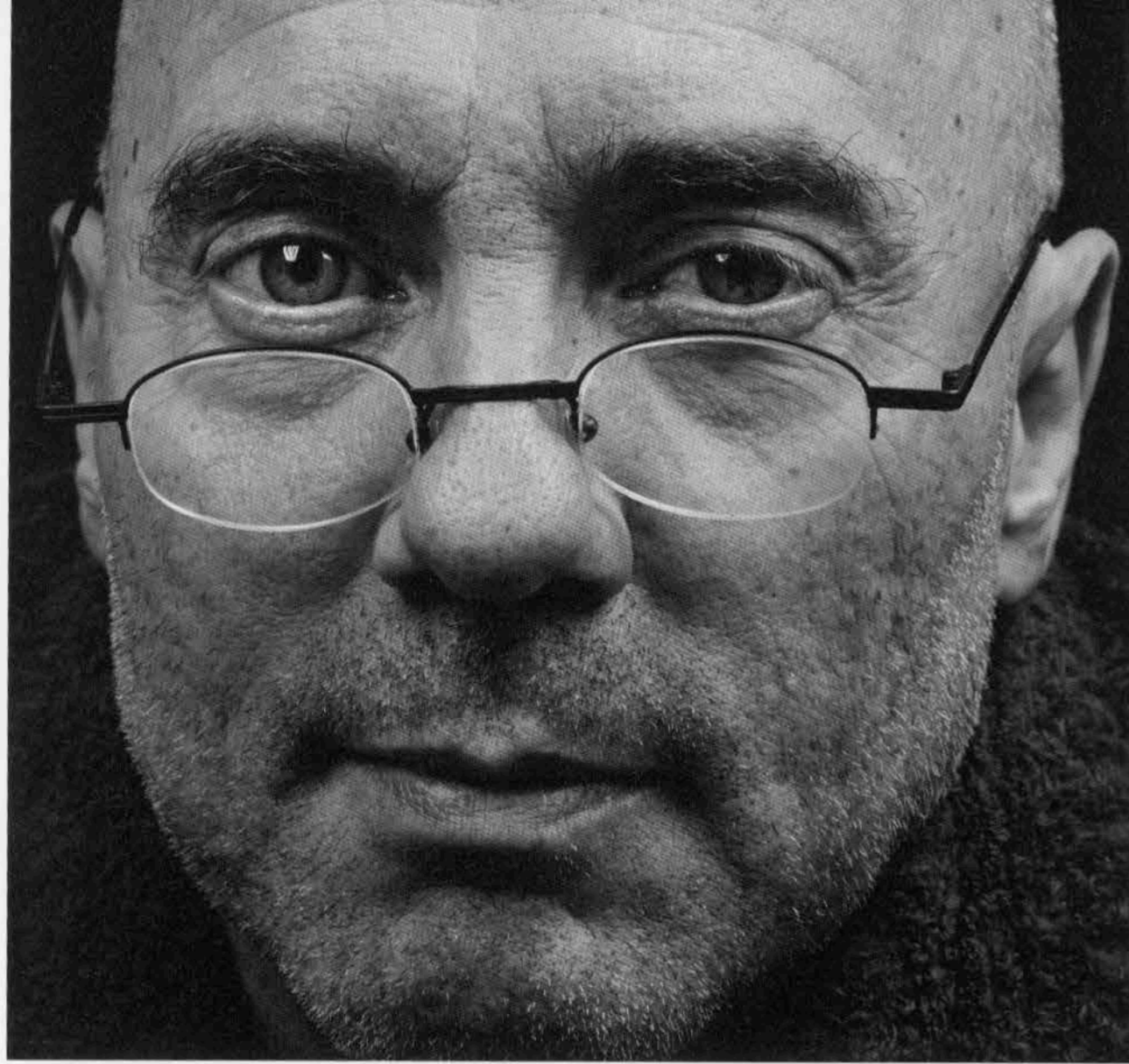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믿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생의 순간과 죽음을 담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동기는 언젠가는 직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죽음과의 만남만큼 우리에게 깊게 남을 경험이 또 있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망자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은밀하게 지워지곤 한다. 죽음, 그리고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이자 삶의 마지막 금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죽음을 이미 완결한 우리의 선대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기회도 매우 희소하다. 사진가 발터 켈츠와 기자인 베아트 라코타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그들 생의 마지막 남은 몇 주 동안 동행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 죽음에 대한 심오한 촬영 작업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경험, 희망과 두려움을 탐구하고 그

들에게 인생에서의 마지막 감정들을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 모두는 사망 직전과 직후의 사진 촬영에 동의했고, 마지막 날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낸 26명 대부분이 사진으로 묘사됐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이 끝나갈 무렵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겨우 잡고 있는 듯했다. 단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기를, 위엄 있는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를,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를 진정 바라고 있었다.

죽음을 매우 신성한 것 혹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로 대하는 오늘날, 이 사진 프로젝트는 병적인 생각의 추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진은 언제나 죽음과 망자, 죽음에 대한 문서 등을 기록하는 역할을 해왔다. 1840년대와 1850년대에 생산된 초기의 은판사진들은 대부분 고인의 가족에게 고용된 사진사가 집에 찾아와 고인을 촬영하





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진사들은 한 가족에 의해 고용되었을 때 비용이 매우 비싼 경우가 많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했다. 사진사가 가져오는 최종의 작업물이 고객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단 하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결혼식처럼 뜻깊고도 필수적인 이벤트로 인식되었던 이유기도 하다.

놀랍게도 오늘날 인류학자들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와 같은 관습을 지켜가고 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사진들은 표면으로 나타나거나 논의되지 않았으며 매우 사적인 문제로 간주됐다. 20세기 동안 사회는 죽음을 추방했다. 우리는 이 필연을 우리 삶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을 점점 더 거부하는 듯하다. 예전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찾아온 집에 방문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에 익숙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죽음이 어떤 모양이었는데, 마지막 호흡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만지는 느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경험했다. 그러

나 오늘날 우리는 죽음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렸고 죽음은 현대의 가장 큰 금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는 하루에도 수차례 폭력과 전쟁, 범죄 및 재앙, 그리고 죽음을 나타내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대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거의 죽음과 직면하지 않는다. 다만 불안으로 경험하고 피하려 할 뿐이다. '죽음 전의 삶' 프로젝트가 강렬히 다가오는 이유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죽음을 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진들을 접했을 때 죽음은 오히려 다소 평범한 것처럼 보이며 미소를 머금게도 한다. 쓸쓸함과 아쉬움, 그리고 깊은 슬픔도 곳곳에 서려 있지만 결국 죽음 또한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안 앤더슨은 19살 때 후천성면역결핍증 판정을 받았다. HIV는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선언한 그는 최대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스물일곱 번째 생일날, 그는 HIV가 희귀한 형태의



Heiner Schmi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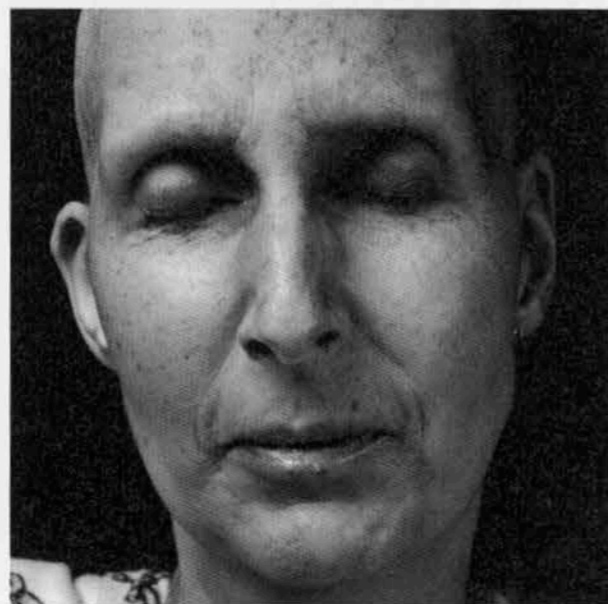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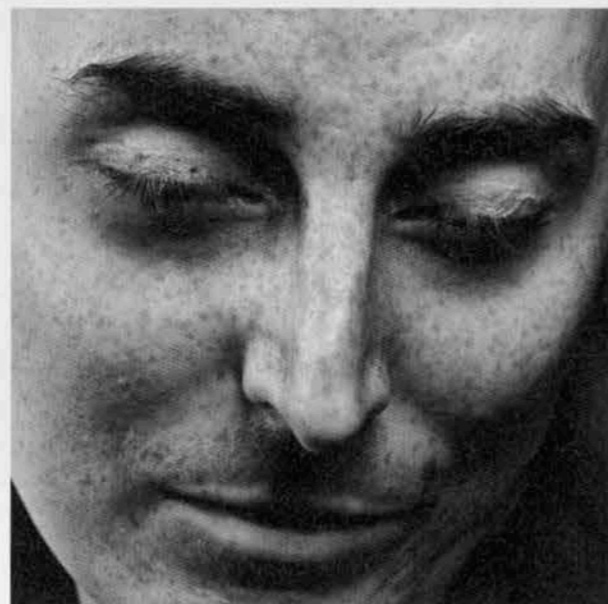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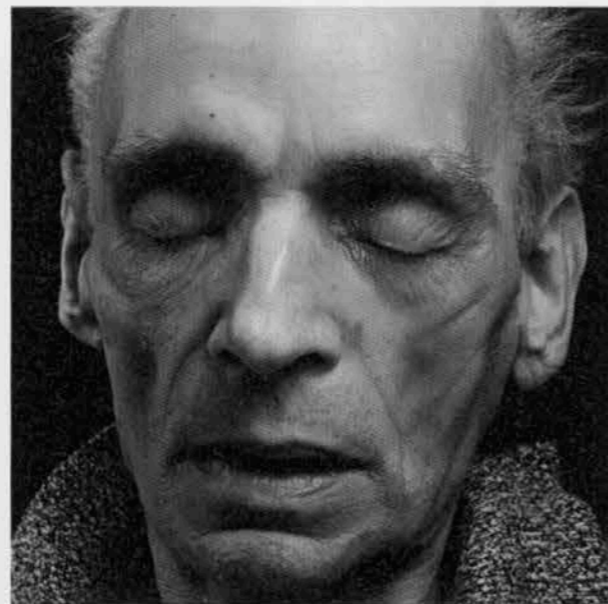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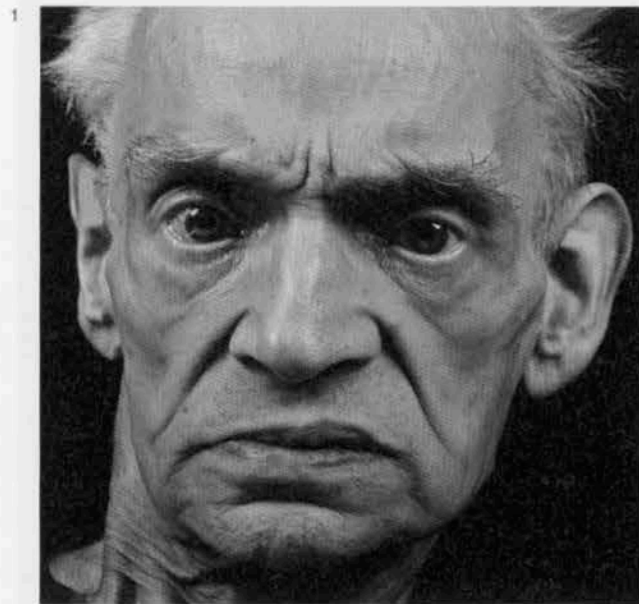
age 52, born 26th November 1951,

first portrait taken 19th November 2003, died 14th December 2003

암으로 변형, 전이되어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은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친구들은 그가 호스피스에서 자신의 병실을 장식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간호사 아이리스에게 자신이 죽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정확히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옆 병실의 여자가 죽자 그는 그녀를 보러갔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완화해주었다. 그가 죽던 날 밤 안은 어머니에게 "아직 거기 있어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너는 지금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란다" 라고 대답했다.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난 이제 그만 가야할 것 같아요." 어머니와 나는 마지막 신체접촉은 매우 가벼운 것이 있음에도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품에 계속 안겨있고 싶어 했다.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머물렀던 것이 참 기쁘다."

5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어쉴라는 암과 싸우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눈을 감기 전 온화한 미소를 띠며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몹시 아팠어요, 너무도 심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은걸요." 83세에 죽음을 맞이한 클라라는 죽기 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주 가끔은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픈 삶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바로 얼마 전 냉장고를 새로 들여놨어요. 이걸 줄 알았으면 사지 말 걸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따스한 해가 비추는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나무 냄새도 맡고 차가운 돌 위에도 앉아보고 바람을 느끼며, 아직 차디찬 강에 발도 담가보고 싶어요. 내가 어릴 적 자주 하던 일이에요. 만약에 또 다른 생이 있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그저 사막의 모래알처럼 나도 몇십억, 몇백억의 죽는 사람 중 하나인 걸



1-2 Jens Pallas, age 62, born 13th April 1941
 first portrait taken 1st December 2003, died 15th December 2003
 3-4 Jan Andersen, age 27, born 21st February 1978
 first portrait taken 8th April 2005, died 14th June 2005, at Leuchtfeuer Hospice, Hamburg
 5-6 Beate Taube, age 44, born 8th March 1959
 first portrait taken 16th January 2004, died 10th March 2004
 7-8 Elmira Sang Bastian, age 17 months, born 18th October 2002
 first portrait taken 14th January 2004, died 23rd March 2004

요. 다만 죽는 과정이 두려울 뿐이에요.” “살았을 때는 죽음이나 일상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실에서 죽음이 오를까 내일 올까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니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늘의 구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창가로 바라보이는 풍경과 화병에 꽂힌 꽃들, 모든 게 중요해지는 거 있죠? 죽음이란 게 이런 거였네요.” 57세의 울프강 쿤트의 마지막 말이다. “한 번만 더 내게 여름이 찾아온다면, 사랑하는 남편과 다시 바다에 가볼 수만 있다면, 또 다른 가을을 지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봤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고통이 표정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가볍게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길 바라요.” 44세에 눈을 감은 베아트 토브의 말이다. ♡

발터 셸즈 & 베아트 라코타 Walter Schels & Beate Lakotta
 1936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발터 셸즈는 14세 때 사진을 발견하고 1960년대 뉴욕에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1970년대에는 패션 잡지와 광고 분야에서 일했으며, 1975년 아기의 출생을 잡지의 프로젝트로 완성한 후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삶을 촬영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65년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난 베아트 라코타는 독일문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델 스피겔(Del Spiegel)』의 과학 분야 편집인으로 일했으며 의학 및 심리학에 대해 기고해오고 있다.
www.walterschels.com

표
 언
 제
 『Noch Mal Leben vor dem Tod (Life before death)』
 Walter Schels & Beate Lakotta 지음
 DVA

